

중량급 잇단 채비... '고흥·보성·장흥·강진' 후끈

내년 4·10 총선

현역 김승남 vs 한명진 리턴매치 최영호 '유턴' 문금주 '정치데뷔' 국힘 김화진 '尹 정부 소통' 강점 '고향 인맥' 총동원... 조기 과열 당내 경선 결과 '최대 관심지'로



김승남 한명진 최영호 문금주 김화진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3선을 노리는 현역의원들과 이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이 치열한 물밑 세 걸집에 나서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특성상 당내 경선 결과는 최대 관심사다.

현재 선거구에는 현역 김승남 의원의 아성에 도전자들이 뛰어들어 형국으로 4년 전 경선에서 맞붙은 한명진 전 방위사업

청 차장의 '재도전', 최영호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의 '유턴 출마',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정치 데뷔'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지역 현안 해결이 가능한 여당 후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먼저 현역 김승남 의원의 선거구 수성에 이목이 쏠린다. 고흥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운동권의 핵심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지난 19대 총선,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해 이번이 3선 도전이다. 지난해까지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의 '재도전'도 눈길을 끈다. 4년 전 당내 경선에서 김승남 의원에게 패한 한 전 차장은 일찍이 선거모드로 전환했다. 보성 출신의 한 전 차장은 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재직했으며 현재는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돼 지역사회 내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30년 경력의 중앙부처 경험과 역

량은 최대 강점이다.

최영호 전 상임감사의 '유턴 출마'도 화제다. 최 전 감사는 정치적 기반인 광주를 떠나 최근 고향인 보성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2002년 광주시의원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해 민선 5·6기 광주 남구청장을 지냈다. 광주에서 전남으로 선거구를 옮긴 만큼 고향 세력 걸집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전남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조만간 총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문 부지사는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전남도 기초실장 등을 역임한 '행정통'이다. 전남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강점이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도 출마를 앞두고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흥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

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기반을 넓혀왔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남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 해결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지도면에선 현역 김승남 의원이 강세지만 도전자들 모두 '고향 인맥'을 총동원하는 등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내 경선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치러질 것으로 보여 당원 확보 마감 시한인 7월까지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 입지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에서 여러 입지자들이 서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밀착형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동구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개소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이 19일 동구 산수문화마당에서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개소식을 갖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스마트 쉼터는 초미세먼지 제거 등 공기정화, 동절기 온열벤치, 스마트폰 충전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시민안전 위협" 정당 현수막 자제 요청

100일간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자제해줄 것을 주요 정당에 요청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100일간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 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 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해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돼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현수막 중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

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달 8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호기, 도로 표지,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신단의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에 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장소와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요구한 후 정비가 가능토록 했다.

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법령 개정도 행안부에 건의했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규격 제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통신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5개 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 단오제**
법성포 천년 단오제에 주춧돌 하나

단오, 만사형통

천년의빛 영광
Glory Yeonggwang
한국의 아름다운 세상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

- 일시 : 2023. 6. 22.(목) ~ 6. 25.(일) 4일간
- 장소 :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및 법성포 뉴타운 일원 • 문의 : 061-356-4331
- 주최 / 주관 :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 제전위원회
- 후원 :
 - 문화재청
 - 국립무형유산원
 - 한국문화재단
 - 영광군
 - 영광군의회
 -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 영광군수협
 - 굴비골농협

| | |
|---------------|-----------|
| 영광군청 | 영광군의회 |
| 영광군교육지원청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
|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 영광군산림조합 |
| 농협중앙회 군지부 | 영광농업협동조합 |
| 교육장 | 서영광농업협동조합 |
| 고광진 | 굴비골농업협동조합 |
| 본부장 최현규 | |
| 지부장 조기영 | |